

새로운 벤처부흥, 지방벤처가 이끈다

'벤처확산' 운동의 5대 과제 중 하나인 지방화는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국 방방곡곡 어디에서든 벤처가 중심이 되는 나라, 벤처의 힘이 골고루 분포되는 나라, 각 지역이 발맞춰 선진한국을 향해 나아가는 나라. 바로 벤처가 꿈꾸는 세상이다.

글 최철안(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과장)

국가경제의 위기 극복과 21세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1990년 후반부터 시작한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이 어느덧 10여 년의 세월이 가까워지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로부터 도움을 받은 국가 중 가장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을 꿈꿀 수 있는 자긍심 높은 국가가 되기까지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제 다시 부는 벤처열기는 시장중심, 지역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전략이 벤처기업육성시책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울산지역만 보더라도 벤처기업 수는 벤처투자기업 2개, 연구개발기업 48개, 신기술기업 402개 등 총 452개로서 전국대비 4.8%의 수준에 불과하다. 부산·울산지역 중소기업비중(8.5%)에 비해서도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그 구조도 대부분 신기술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벤처투자기업은 고작 0.4%에 불과해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벤처육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벤처기업의 수도권 집중도는 68.9%에 달해 수도권 중소기업비중(57.2%)을 넘어서 더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벤처가 취약한 원인 3가지

· 벤처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투자=경영권 침해'라는 인식은 투자대상기업의 축소→투자 축소→벤처창업 투자 회피 등으로 이어져 벤처창업 및 벤처투자 기반을 크게 위축시킨다. 현재 지역의 유망한 기업은 투자유치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은 수도권으로 투자처를 찾아다니고 있다. 따라서 지방기업들의 벤처투자에 대한 이해와 투자유치요령 습득 등 투자의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 벤처기반의 취약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창투사)는 거의 수도권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회사는 전문화 실정이다. 이는 지역중심의 투자조합 결성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역기반의 투자회사, 투자조합의 결핍은 당연히 벤처투자의 저조로 이어진다. 물론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투자회사나, 투자조합이 없는 것이라고 강변할 수 있지만, 지역에 투자회사나 투자조합이 많을 경우 새로운 투자처 발굴 등 다양한 형태의 발전이 있을 수 있다.

· 벤처 네트워크의 부족 벤처기업끼리 친목을 도모하고 벤처에 대한 정책제안이나 애로해소 요구에 대한 공동의견을 낼 수 있는 조직체나 기구가 거의 없다. 물론 각종 조합이나 단체가 있어 간담회 등을 통해 간간히 의견을 표출하고 있으나 벤처에 대한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벤처 생태계는 벤처투자자와 투자받을 벤처기업의 경연의 장이다. 이 두 그룹의 활동에 존재하는 제도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점들은 직접적인 투자와 투자유치 과정을 통해 도출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투자도, 문제점 도출도,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도 미미하다. 기업의 활동은 융자나 보조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 기업을 공개하고 전문가와 전문펀드들의 도움을 통해야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벤처 네트워크는 벤처기반구축은 물론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리딩벤처-지방벤처 연합이 첫걸음

2006년 1월 17일 발족하게 되는 부산벤처기업협회는 지방 벤처기업의 의견을 결집할 수 있는 기구이자, 지역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중앙의 리딩벤처기업과 지방의 주요 벤처기업 간 연계통로가 구축되고, 중앙의 벤처정보 및 지원이 지방으로 밀려오게 되는 기회가 보다 넓어질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 벤처기업은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벤처생태계에 대한 동향과 기법, 운영방법 등을 충분히 공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벤처생태계 조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벤처투자에 대한 의식변화와 벤처캐피탈 유치 등을 우선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수도권의 리딩벤처기업들은 지역벤처와의 연계를 통한 동반성장의 가능성을 타진함과 동시에 새로운 성장모델 마련도 가능할 것이다. 이는 벤처기업 개개의 발전뿐 아니라 국가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견고한 기초이다.

21세기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는 지방 벤처기업, 이들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우선 벤처기업인의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벤처캐피탈의 모임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벤처투자 및 벤처창업의 확산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벤처부흥을 지역벤처가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